

24장. 왕 되신 주

- (1)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하도다
- (2) 소망의 주 다 찬양 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 (3)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 (1)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후렴 : 내게도 내게도 은혜내려 주소서 아멘
- (2)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 갈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 (3)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 (4)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 (5) 변함 없는 주의 사랑 영원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9월 22일 (토) 기도 담당 : 이희은 집사

2018년 9월 21일 (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24장	다같이
기도	정준수 집사
성경봉독 시편 61:1-8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	김명자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362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시편 61:1-8>

1. 하나님이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5. 주 하나님이며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9월 21일 (금)

저희들의 전 삶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자식의 심각한 거역으로 인해 마치 땅 끝 벼랑에 선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의 곤고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문제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여하한 곤고함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나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들께 복을 주시어, 부모님들의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육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신앙, 학업, 직장, 결혼, 출산의 일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자녀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 예고 없이 닦치는 건강, 경제, 기타 각양의 곤고함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131년의 유구한 역사동안 저희 새문안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 이제 새 성전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름답고 거룩한 새 성전이 완공되는 그 날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매순간마다 안보하여 주옵시며, 온 교인들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봉헌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들의 삶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코트디부아르로 떠난 의료선교부원들의 발걸음을 친히 주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준비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명하신 하나님! 복음에 빛진 자인 저희 교회가 이방 각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기꺼이 그 빛 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사역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놀랍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미련함과 방자함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전반에 부정적인 상황들을 도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절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6만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새롭게 깨어나 이 땅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시며, 평화적 통일의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